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지 형 주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멘델스존 첼로소나타 1번과 2번의  
제1악장 비교분석 연구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길 지 혜

멘델스존 첼로소나타 1번과 2번의  
제1악장 비교분석 연구

지 형 주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길 지 혜

# 인 준 서

길지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1월

심사위원장 ..... 신 인 선 .....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 김 미 영 .....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 지 형 주 .....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독일의 낭만시대 작곡가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 1809 - 1847) 첼로소나타 1번(Op.45)과 2번(Op.58)의 제1악장을 각각 분석한 후 비교하였다. 그는 총 2개의 첼로소나타를 작곡했는데, 1번은 1838년에 2번은 1843년에 쓰여 졌다. 두 곡 모두 남동생인 파울 멘델스존(Paul Mendelssohn Bartholdy, 1812-1874)을 위해 작곡되었다.

첼로소나타 1번의 1악장은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이다. 제1주제는 피아노가 2개의 대조악구를 이루며 B<sup>b</sup>장조로 부드럽고 우아한 선율을 제시한다. 제2주제는 센텐스의 구조로, 제1주제와 다르게 강한 악상으로 전통적인 조성구조가 아닌 3도관계의 d단조로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발전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제1부분은 제1주제의 요소를, 제2부분은 제2주제의 요소를 중심으로 발전된다. 재현부는 원조인 B<sup>b</sup>장조로 제1주제와 제2주제의 선율을 연장하고, 생략하며 재현한다. 대종결부에서는 제1주제의 요소들을 계속 변형하고 반복하며 곡을 마무리한다.

첼로소나타 2번의 1악장 역시 소나타 형식이다. 제1주제는 포르테로 D장조의 활발한 선율을 제시하고, 제2주제는 A장조의 여리고 부드러운 선율로 등장한다. 제1주제는 선행악구와 후행악구로 이루어져있고, 2주제는 센텐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발전부는 2부분으로, 제1부분과 제2부분은 각각 제1주제, 제2주제의 선율음형을 변형하여 발전한다. 재현부의 제1, 2주제는 원조인 D장조로 선율을 변형시켜 재현한다. 대종결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에서 등장했던 제1주제와 제2주제요소를 계속 등장시킨다. 특히 제1주제를 반복하며 곡을 마무리한다.

첼로소나타 1번과 2번의 1악장을 비교해보면, 두 주제의 성격이 대조적이거나, 강한 악상의 주제가 1번에서는 2주제에, 2번에서는 1주제에 나타난다.

구조적으로 1번의 제1주제는 2개의 대조약구로 이루어졌으며 제2주제는 센텐스의 구조로 되어있다. 2번의 제1주제는 선행약구와 후행약구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제2주제는 모두 센텐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발전부에서는 두 곡 모두 제1부분에서 제1주제의 요소를, 제2부분에서는 제2주제의 요소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제1주제와 제2주제의 제시부와 재현부의 조성 관계에서는, 1번은 제시부에서 B<sup>b</sup>장조-d단조, B<sup>b</sup>장조-g단조로 19세기에 통용되는 3도 관계를 보여주고, 2번은 D장조-A장조, D장조-D장조로 전통적인 조성구조를 나타낸다.

멘델스존은 소나타 형식과 주제의 구조에서 전통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그 속에 구성된 도약 순차하는 선율, 비화성음의 사용, 장단조의 혼용, 아르페지오와 셋잇단음표의 색채적인 반주 기법 등 음악적인 구성에서 낭만적 특성을 드러냄으로써 첼로 소나타에서도 ‘고전적 낭만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목 차

논문개요

표목차

악보목차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II. 이론적 배경 .....	3
1. 멘델스존의 실내악 .....	3
2. 멘델스존 첼로소나타 작곡배경 및 구성 .....	9
1) 첼로소나타 1번 작곡배경 및 구성 .....	9
2) 첼로소나타 2번 작곡배경 및 구성 .....	11
III. 작품 분석 및 비교 .....	13
1.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분석 .....	13
1) 제시부 분석 .....	14
2) 발전부 분석 .....	26
3) 재현부 분석 .....	31
4) 대중결부 분석 .....	35

2.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분석 .....	37
1) 제시부 분석 .....	38
2) 발전부 분석 .....	47
3) 재현부 분석 .....	53
4) 대중결부 분석 .....	56
3. 첼로소나타 1번과 2번의 제1악장 비교 .....	57
1) 제시부 비교 .....	57
2) 발전부 비교 .....	60
3) 재현부 비교 .....	61
4) 대중결부 비교 .....	62
IV. 결 론 .....	63
참고문헌 .....	66
ABSTRACT .....	69

## 표 목 차

[표 1] 멘델스존의 실내악 작품목록 .....	4
[표 2] 첼로소나타 1번의 악장구성 .....	9
[표 3] 첼로소나타 2번의 악장구성 .....	11
[표 4]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전체 형식구조 .....	13
[표 5]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170-178의 역할관계 .....	28
[표 6]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전체 형식구조 .....	37
[표 7]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154-173 선율음형구조 .....	48
[표 8]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제시부와 재현부 제2주제 구성 비교 .....	54
[표 9] 제시부 제1주제부 비교 .....	57
[표 10] 제시부 제2주제부 비교 .....	58
[표 11] 제시부 소종결부 비교 .....	59
[표 12] 발전부 비교 .....	60
[표 13] 재현부 제1주제 비교 .....	61
[표 14] 재현부 제2주제 비교 .....	61

## 악 구 도 해 목 차

[악구도해 1]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제1주제 .....	15
[악구도해 2]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제2주제 .....	20
[악구도해 3]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제1주제 .....	38
[악구도해 4]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제2주제 .....	43

## 악 보 목 차

[악보 1]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1-16 .....	15
[악보 2]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17-30 .....	16
[악보 3]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31-38 .....	17
[악보 4]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38-46 .....	18
[악보 5]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51-56 .....	19
[악보 6]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61-68 .....	21
[악보 7]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69-94 .....	22
[악보 8]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95-103 .....	23
[악보 9]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111-117 .....	24
[악보 10]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120-128 .....	25
[악보 11]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138-149 .....	26
[악보 12]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149-169 .....	27
[악보 13]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170-182 .....	28
[악보 14]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189-198 .....	29
[악보 15]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199-206 .....	30
[악보 16]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219-226 .....	31
[악보 17]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245-250 .....	31
[악보 18]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251-255 .....	32
[악보 19]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262-278 .....	33
[악보 20]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279-287 .....	33
[악보 21]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316-321 .....	35
[악보 22]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330-348 .....	36
[악보 23]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1-4 음형 .....	39

[악보 24]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1-18 .....	40
[악보 25]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19-26 .....	41
[악보 26]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27-34 .....	41
[악보 27]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40-58 .....	42
[악보 28]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67-83 .....	44
[악보 29]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83-91 .....	44
[악보 30]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106-121 .....	45
[악보 31]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122-130 .....	46
[악보 32]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137-144 .....	46
[악보 33]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154-173 .....	47
[악보 34]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174-198 첼로선율 .....	49
[악보 35]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198-214 .....	50
[악보 36]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214-231 .....	51
[악보 37]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239-249 .....	51
[악보 38]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250-260 .....	52
[악보 39]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262-269 .....	53
[악보 40]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279-283 .....	54
[악보 41]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435-451 .....	56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멘델스존은 독일 낭만주의 작곡가의 대표 인물 중 한명이다. 11세에 작곡을 시작하여 평생 수많은 작품을 작곡하였고,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로서 연주활동도 활발하게 하였다. 그는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을 취하면서 선율의 굴곡과 화려한 색채감, 환상적인 아름다움으로 낭만주의 실내악의 정수를 보여준다.<sup>1)</sup>

그는 총 47곡의 많은 실내악을 남겼고, 그 중 첼로소나타는 2곡이다. 첼로소나타 1번은 1838년에, 2번은 1843년에 작곡하였다. 2곡 중 국내에서 첼로소나타 2번은 연주와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있다.<sup>2)</sup> 반면, 첼로소나타 1번에 대한 학위논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첼로소나타 1번과 2번의 제1악장을 분석함으로써 ‘고전적 낭만주의자’<sup>3)</sup>라고 불리는 멘델스존이 2개의 첼로소나타를 통해 어떻게 음악적 성향을 드러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1) 민은기 외 3명, 『서양음악사2』 (과주: 음악세계, 2014), 176-198.

2) 2000년 이후에 출판된 석사학위 논문은 다음과 같다: 추호선, “Felix Mendelssohn cello sonata No.2, Op.58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홍보경, “F. Mendelssohn Cello sonata no. 2, op. 58에 대한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오아미, “Felix Mendelssohn의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D major op.58에 관한 분석 및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이현미, “멘델스존 <첼로소나타 제2번> 분석연구 : 주제와의 관계로 본 <첼로소나타 제2번> 제1악장의 연주해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태순애, “Mendelssohn Cello sonata No.2, D Major, op58에 관한 연구 분석”,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장지원, “F. Mendelssohn Cello Sonata, Op. 58, No. 2 에 관한 분석 및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이수연, “Felix Mendelssohn Cello Sonata, Op. 58, No. 2에 관한 연구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3) Donald J. Grout, Claude V. Palisca and J. Peter Burkholder,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하권』 민은기 외 5명 옮김 (서울: 이앤비플러스, 2007), 93-98.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멘델스존의 첼로소나타 1번과 2번의 제1악장 비교분석 연구이다. 첼로소나타 1번은 그가 29세인 1838년에, 2번은 34세인 1843년에 쓰여졌다. 두 첼로소나타 모두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대종결부로 구성된 소나타형식의 곡이다.

곡을 분석하기 전에 이론적 배경으로 멘델스존의 실내악을 시기별로 알아보고, 두 첼로 소나타의 작곡 배경과 구성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본문에서는 첼로소나타 1번과 2번의 제1악장을 각각 전개되는 대로 분석한 후 두곡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분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조를 도표화하여 설명하고 악보와 악구도해를 첨가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악보는 헨레 출판사(G. Henle Verlag)의 2001년 판이다.<sup>4)</sup> 음반은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Mischa Maisky)와 피아니스트 세르지오 티엠포(Sergio Tiempo)가 연주한 유니버설 클래식(Universal Classics) 음반을 참고하였다.<sup>5)</sup>

---

4) Mendelssohn, *Sonata for Piano and Violoncello in B<sup>b</sup> Major op.45*, (München: G. Henle Verlag, 2001), Edited by Rudolf Elvers, Ernst Günter Heinemann, 2-40.; Mendelssohn, *Sonata for Piano and Violoncello in D Major op.58*, (München: G. Henle Verlag, 2001), Edited by Rudolf Elvers, Ernst Günter Heinemann, 2-48.

5) Felix Mendelssohn - *Cello Sonatas / Variations / 7 Songs without word*, Mischa Maisky & Sergio Tiempo, Universal Classics 2002.

## II. 이론적 배경

### 1. 멘델스존의 실내악

멘델스존이 살았던 낭만시대는 교향곡, 협주곡, 오페라와 같은 장르들이 보다 발전되고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 실내악 장르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고전시대보다 작품의 수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전통 양식을 중시하는 작곡가들, 즉 멘델스존을 비롯하여 슈베르트(Franz Schubert, 1797-1828),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에 의해서 여전히 주요 장르로 자리 잡고 있었다.<sup>6)</sup>

멘델스존의 실내악 작품을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sup>7)</sup> 1820년-1821년을 ‘견습기’(12세 이전), 1822년-1829년을 ‘청소년기’(12세-19세), 1832년-1838년을 ‘성숙기’(20세-29세), 1839년-1847년을 ‘완숙기’(30세 이후)로 살펴볼 수 있다. [표 1]에 나타나 듯 멘델스존은 11세가 되던 1820년부터 사망한 해인 1847년까지 한 평생 실내악을 작곡하였고, 그 결과물로 총 47개의 많은 실내악 작품을 남겼다. 1820년에서 1821년에 작곡한 곡들은 작품번호가 없고, 이후에도 간간히 작품번호가 없는 곡들과 작곡연도에 대한 기록이 없는 곡들도 있다.<sup>8)</sup>

6) 허영환 외 6명, 『새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본문2』 (서울: 심설당, 2009), 175-176.

7) 멘델스존의 생애는 *New Grove Dictionary*에 나와 있는 Early Years(1809-1820), Apprenticeship and early maturity(1821-1829), Years of travel and the Grand Tour(1829-1832), Düsseldorf(1833-1835), Leipzig(1835-1840), Berlin and Leipzig(1840-1847)를 참고하여, 견습기, 청소년기, 성숙기, 완숙기로 나누었다. R. Larry Todd, “Mendelssohn, Felix: Works”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nd Edition, London: Macmillan, Vol.16, 2001, 410-412.

8) R. Larry Todd, “Mendelssohn, Felix: Works”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410-412.

그의 실내악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2중주 작품으로는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2중주가 13곡으로 가장 많으며, 첼로와 피아노의 2중주 5곡, 비올라와 피아노, 클라리넷과 피아노, 하프와 피아노를 위한 곡이 각각 1곡씩 있다. 3중주 작품으로는 전통적 구성인 피아노3중주가 4곡이 있고, 클라리넷과 바셋호른, 피아노를 위한 협주적 변주곡 2곡이 있다. 4중주 작품으로는 현악4중주가 12곡으로 가장 많고, 피아노4중주 4곡이 있다. 그 외에 현악 5중주곡 2곡, 피아노6중주곡 1곡, 현악8중주곡 1곡이 있다.

[표 1] 멘델스존의 실내악 작품목록<sup>9)</sup>

시기	연도	Op	작품	악기구성
전습기	1820	-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알레그로》 C장조	Vn, Pf
		-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안단테》 d단조	Vn, Pf
		-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무브먼트》 g단조	Vn, Pf
		-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주제와 변주》 C장조	Vn, Pf
		-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푸가》 d단조	Vn, Pf
		-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 C장조	Vn, Pf
		-	현악4중주 《레치타티보》 d단조	Pf, 2Vn, Vc, Db
		-	피아노3중주 c단조	Vn, Va, Pf
		-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미뉴엣》 G장조	Vn, Pf
		-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F장조	Vn, Pf
	-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	Vn, Pf	
	1821	-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푸가 모음곡 d, g, d단조	Vn, Pf
		-	현악4중주 푸가 모음곡	2Vn, Va, Vc
		-	피아노4중주 d단조	Pf, Vn, Va, Vc

9) [표 1]에 정리한 멘델스존의 실내악 작품목록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Todd, R. Larry Todd, "Mendelssohn, Felix: Works"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410-412; 민은기 외 7명, 『펠릭스 멘델스존 전통과 진보의 경계』 (서울: 음악세계, 2009), 315-333.

청소년기	1822	1	피아노4중주 1번 c단조	Pf, Vn, Va, Vc
	1823	-	현악4중주 E <sup>b</sup> 장조	2Vn, Va, Vc
		4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f단조	Vn, Pf
		2	피아노4중주 2번 f단조	Pf, Vn, Va, Vc
	1824	-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c단조	Vn, Pf
		-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E <sup>b</sup> 장조	Cl, Pf
		110	피아노6중주 D장조	Vn, 2Va, Vc, Db, Pf
	1825	3	피아노4중주 3번 b단조	Pf, Vn, Va, Vc
		20	현악8중주 E <sup>b</sup> 장조	4Vn, 2Va, 2Vc
	1826	18	현악5중주 1번 A장조	2Vn, 2Va, Vc
	1827	13	현악4중주 2번 a단조	2Vn, Va, Vc
		81/4	현악4중주 《푸가》 E <sup>b</sup> 장조	2Vn, Va, Vc
	1829	17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협주적 변주곡 D장조	Vc, Pf
		12	현악4중주 1번 E <sup>b</sup> 장조	2Vn, Va, Vc
		-	하프와 피아노를 위한 《저녁중》	Hp, Pf
성숙기	1832	113	클라리넷과 바셋호른, 피아노를 위한 협주적 소품 1번 f단조	Cl, Basset-horn, Pf
	1833	114	클라리넷과 바셋호른, 피아노를 위한 협주적 소품 2번 d단조	Cl, Basset-horn, Pf
	1835	-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아사이 트란켈로》 b단조	Vc, Pf
	1838	44	현악4중주 3번 D장조, 4번 e단조, 5번 E <sup>b</sup> 장조	2Vn, Va, Vc
		-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F장조	Vn, Pf
	45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번 B <sup>b</sup> 장조	Vc, Pf	
완숙기	1839	49	피아노3중주 1번 d단조	Pf, Vn, Vc
	1843	58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 D장조	Vc, Pf
		81/3	현악4중주 《카프리치오》 e단조	2Vn, Va, Vc
	1845	66	피아노3중주 2번 c단조	Pf, Vn, Vc

		87	현악5중주 2번 B플랫장조	2Vn, 2Va, Vc
		109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무언가》 D장조	Vc, Pf
	1847	80	현악4중주 6번 f단조	2Vn, Va, Vc
		81/1	현악4중주 《안단테 소스테누토와 변주》 E장조	2Vn, Va, Vc
		81/2	현악4중주 《스케르초》 a단조	2Vn, Va, Vc
-	-	-	현악4중주 《테마》 A장조	2Vn, Va, Vc
-	-	-	피아노3중주 A장조	Pf, Vn, Vc
-	-	-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1악장	Vn, Pf

멘델스존은 어린 시절부터 고전 형식들을 엄격하게 훈련 받아왔기 때문에 10대 때인 견습기와 청년기의 실내악에서 주로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하이든(Franz Joseph Haydn, 1732-1809),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와 베토벤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영향이 보인다.<sup>10)</sup>

견습기에 작곡한 실내악 곡 중 바흐의 영향이 드러나는 작품으로는 1820년에 작곡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푸가》 d단조와 1821년에 작곡한 푸가 모음곡 d, g, d단조 그리고 현악4중주 푸가 모음곡이 있다. 또한 그는 1829년 바흐의 《마태수난곡》을 연주하여 과거 100년 이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혔던 바흐를 부활시켰다.<sup>11)</sup> 이것 역시 멘델스존이 성장과정에서부터 가졌던 바흐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청소년기에는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영향을 받았다. 그들의 영향이 드러나는 작품으로는 1824년 15세에 작곡한 피아노6중주 D장조(Op.110)로 전통적인 전체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3)</sup>

10) Donald J. Grout, Claude V. Palisca and J. Peter Burkholder,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하권』, 68-69, 93-98.

11) 민은기와 3인, 『서양음악사2』, 176.

12) 김용환, 『모두를 위한 서양음악사 2』 (서울: 가람기획, 2017), 165.

13) 차호성, 오희숙, 『들으며 배우는 관현악문헌 실내악 1』 (서울: 심설당, 2003), 257-258.

1825년 16세에 작곡한 현악 8중주 E<sup>b</sup>장조(Op.20)는 그의 실내악 작품 중 처음으로 인정받은 곡으로, 푸가 양식의 4악장은 이전 악장의 주제가 재현됨으로써 순환적 구성이 시도되는 곡이다.<sup>14)</sup>

1826년에는 현악4중주 a단조(Op.13)와 현악4중주 E<sup>b</sup>장조(Op.12)를 작곡하였다. 멘델스존은 후기 베토벤 음악에서 출발한 현악 4중주를 썼다.<sup>15)</sup> 특히 현악4중주 a단조는 베토벤이 사망한 해인 1827년에 출판되었고, 베토벤의 현악4중주(Op.132)의 영향이 잘 드러나 있는 곡이다. 현악4중주 E<sup>b</sup>장조(Op.12)는 악장의 자리바꿈이 처음으로 시도 되었고, 주제와 구조적인 면에서 베토벤의 현악4중주(Op.74)와 현악4중주(Op.127)의 흔적이 보여 지는 곡이다.<sup>16)</sup>

성숙기에 작곡된 3곡의 현악4중주(Op.44)는 19세기 후반에 현악4중주의 걸작으로 평가되었다. 외형적으로는 고전적인 4악장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멘델스존 자신만의 고유한 양식을 발전시킨 곡이다.<sup>17)</sup> 현악4중주(Op.44)와 비슷한 양식의 실내악곡으로는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번(Op.45)있다.<sup>18)</sup>

완숙기에 작곡된 2개의 피아노3중주(Op.49, Op.66)는 멘델스존의 실내악작품 중에서 가장 자주 연주되며, 피아노를 현악기와 대비해 독립적인 음향체를 설명한 작품이다.<sup>19)</sup>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956)은 이 두 작품을 “베토벤 이후 가장 위대한 3중주곡”이라고 극찬하였다.<sup>20)</sup> 그의 완숙기 작품으로는 현악4중주 f단조(Op.80), 현악5중주 B<sup>b</sup>장조(Op.87),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Op.58)이 있다. 멘델스존의 현악 4중주는

14) Donald J. Grout, Claude V. Palisca and J. Peter Burkholder,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하권』, 97-98.

15)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 2』 (과주: 나남, 2016), 300.

16) 김용환, 『서양음악사 시리즈 19세기 음악』 (서울: 모노폴리, 2018), 206.

17) 차호성, 오희숙, 『들으며 배우는 관현악문헌 실내악 1』, 95-98.

18) 김용환, 『서양음악사 시리즈 19세기 음악』, 206-207.

19)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 2』, 298.

20) 홍세원, 『서양음악사Ⅱ』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492.

고전적 대위법과 낭만적 상상력을 결합한 작품으로 평가된다.<sup>21)</sup>

멘델스존의 실내악곡 중 제목을 갖는 곡으로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무브먼트》, 하프와 피아노를 위한 《저녁중》,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아사이 트란퀼로》 그리고 《무언가》가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멘델스존은 총 47개의 많은 실내악 작품을 남김으로써 그에게 실내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가 18세기까지 실내악 편성의 기본 이었던 피아노 3중주와 현악4중주를 다수 작곡함으로써 고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미 성숙기 이전에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2중주곡이나 현악4중주와 같이 현악기가 포함된 곡들을 다수 작곡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의 많은 실내악 중 성숙기와 완숙기에 작곡된 첼로소나타 1번과 2번의 제1악장을 살펴보려 한다.

---

21)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 2』, 300.

## 2. 멘델스존 첼로소나타 작곡배경 및 구성

### 1) 첼로소나타 1번의 작곡배경 및 구성

첼로소나타 1번은 멘델스존이 성숙기인 1838년 10월에 남동생이자 첼리스트인 파울을 위해 작곡하였다.<sup>22)</sup> 1839년 파리에서 출판되었으며, 라이프치히의 키스트너(Kistner)판과 런던의 노벨로(Novello)판으로 동시에 발행되었다.<sup>23)</sup> 첼로소나타 1번은 세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있다. 악장구성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한다[표 2].

[표 2] 첼로소나타 1번의 악장구성

악장	빠르기	박자	조성	마디	형식
1	Allegro Vivace	4/4	B <sup>b</sup>	348	소나타 형식
2	Andante	3/8	g	175	2부 형식
3	Allegro assai	4/4	B <sup>b</sup>	254	소나타 형식

제1악장 Allegro Vivace는 B<sup>b</sup>장조의 4/4박자 소나타형식의 곡이다. 전반적으로는 경쾌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부드럽고 우아한 선율이 편안한 분위기도 이끌어낸다.

제2악장 Andante는 3/8박자 2부형식의 곡으로 원조의 나란한조인 g단조로 구성된다. 부점리듬과 스타카토를 사용한 피아노의 장난스러운 선율로 시작되는데 이 선율이 곡이 끝날 때 까지 반복되고 전체적으로 신비로운 느

22) Wenborn Neil, *Mendelssohn His Life and Music*, 김병화 역. 『멘델스존, 그 삶과 음악』 (서울: 포토넷, 2010), 242; R. Larry Todd, *Mendelssohn essays* (New York: Routledge, 2013), 156.

23) Nicole Grimes, Angela Mace, *Mendelssohn Perspectives* (New York: Routledge, 2016), 319.

김을 준다. 첼로는 피치카토를 사용하여 밝고 경쾌하며, 익살스러운 분위기를 더욱 더 표현한다.

제3악장 Allegro assai는 원조인 B<sup>b</sup> 장조의 4/4박자 소나타형식의 곡이다. 제시부는 첼로의 주제선율로 시작되는데, 이곡의 1악장과 유사한 주제가 펼쳐진다. 전체적으로 밝고 가벼운 느낌을 가지고 있다. 피아노가 첼로선율에 따라 쾌활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 2) 첼로소나타 2번의 작곡배경 및 구성

첼로소나타 2번은 완숙기인 1841년부터 작곡하기 시작하여 1842년 후반에 완성되었다. 첼로소나타 1번과 같이 남동생인 파울을 위해 작곡되었고, 후원자이자 첼리스트인 러시아의 마테우스 비엘호르스키(Mateusz Wielhorski, 1794-1866)에게 헌정되었다. 이 곡은 작곡된 후 다음해인 1843년에 출판되었다.<sup>24)</sup>

첼로소나타 1번보다 한 악장이 더 추가된 4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있다. 악장구성을 [표 3]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표 3] 첼로소나타 2번의 악장구성

악장	빠르기	박자	조성	마디	형식
1	Allegro assai vivace	6/8	D장조	451	소나타 형식
2	Allegretto Scherzando	2/4	b단조	183	2부 형식
3	Adagio	4/4	G장조	47	2부 형식
4	Molto Allegro e vivace	4/4	D장조	269	2부 형식

제1악장 Allegro assai vivace는 D장조의 6/8박자 소나타 형식이다. 밝고 쾌활하며, 역동적인 분위기를 띄고 있다. 전체 악장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길다.

제2악장 Allegretto Scherzando는 원조의 나란한조인 b단조의 2/4박자 곡이다. A부분과 B부분이 반복되는 2부 형식으로 피아노의 스타카토와 첼로의 피치카토를 사용하여 밝고 경쾌하며, 익살스러운 분위기를 표현한다.

24) R. Larry Todd, *Mendelssohn: A Life in Musi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455.

제3악장 Adagio는 원조와 버금딸림음 관계인 G장조의 4/4박자 곡이다. A 부분과 A'부분으로 나뉘는 2부 형식으로 코랄 풍 아르페지오 피아노코드가 전주로 화려하게 시작되고, 곡을 전반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다. 또한 첼로가 아르코와 피치카토를 동시에 사용하는 기법을 보여준다.

제4악장 Molto Allegro e vivace는 4/4박자의 2부 형식의 곡이다. 포르테로 강하게 시작하며 역동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조성은 원조인 D장조로 돌아오며 전통적인 고전소나타 형식을 따르고 있다.

고전주의 소나타의 악장구성은 빠른 템포의 1악장 뒤에 느린 템포의 2악장이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 곡에서는 2악장에 Allegretto Scherzando가, 3악장에서 Adagio가 배치되어있다.

### Ⅲ. 작품분석 및 비교

#### 1.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분석

첼로소나타 1번의 제1악장은 제시부-발전부-재현부-대종결부로 구성된 소나타 형식이다. 4/4박자의 알레그로 비바체(Allegro vivace)의 빠르기로 조성은 B<sup>b</sup> 장조이며 전체적으로는 활기찬 분위기를 띄고 있다.

제시부는 제1주제부, 경과부, 제2주제부, 종결주제, 소종결부로 이루어져 있다. 제1주제는 B<sup>b</sup> 장조로 제시되고, 제2주제는 원조의 딸림조인 F장조가 아닌 d단조로 제시된다. 발전부는 제1주제 요소가 포함된 제1부분과 제2주제 요소가 포함된 제2부분, 재경과부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분에서 제1주제 요소를 F장조로, 제2부분에서 제2주제요소를 C장조로 등장시킨다.

재현부는 제시부와 같은 구조로 재현되며, 제1주제는 B<sup>b</sup> 장조로 제2주제는 g단조로 나타난다. 그리고 대종결부를 거치며 곡이 마무리된다. 제1악장의 전체 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표 4]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전체 형식구조

부분	구분	마디	주요조성
제시부	제1주제부	1-30	B <sup>b</sup>
	경과부	31-60	B <sup>b</sup>
	제2주제부	61-94	d
	종결주제	95-110	F
	소종결부	111-137	F

발전부	제1부분	138-188	F
	제2부분	189-198	c
	재경과부	199-218	A
재현부	제1주제부	219-250	B <sup>b</sup>
	경과부	251-260	B <sup>b</sup>
	제2주제부	261-278	g
	중결주제	279-294	B <sup>b</sup>
	소중결구	295-315	B <sup>b</sup>
대중결부	대중결부(Coda)	316-348	B <sup>b</sup>

## 1) 제시부 분석

### (1) 제1주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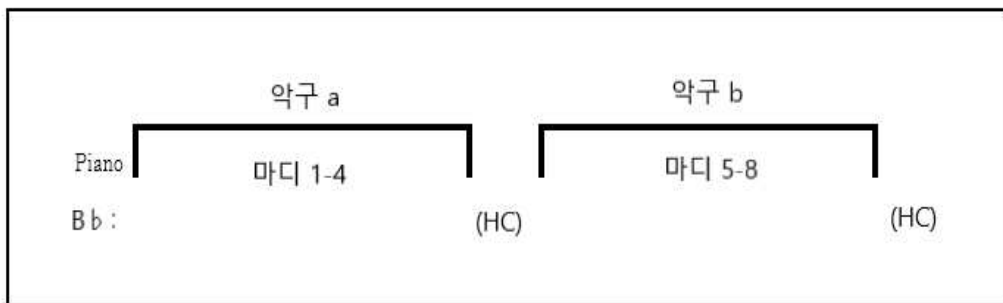
제1주제부는 마디1-30으로 구성은 세부분인 A+B+A'의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마디1부터 마디8의 제1주제선율인 A부분, 마디9부터 마디16의 주제와 다른 선율의 B부분 그리고 마디17부터 마디30의 제1주제의 확장부분인 A'로 구성된다.

제1주제는 피아노가 B<sup>b</sup>장조의 부드러운 선율을 제시하는데, 2개의 대조악구(a+b)로 이루어져있다[악구도해 1]. 마디1부터 마디4의 악구a는 여린 피아노셈여림에서 포르테까지 급하게 크레센도가 이루어지며 상승하는 선율이다. 마디5부터 마디8의 악구b는 첫 박에 스포르잔도를 사용한 뒤 점점 작아지고 꾸밈음과 악센트를 첨가하여 하행하는 선율이다.

첼로는 피아노와 동시에 시작하여 유니즌으로 제1주제의 악구a를 함께 연주하고, 마디5에서 마디8은 B<sup>b</sup>의 딸림음인 F음을 계속 지속한다. 마디8후반

부터 첼로가 제1주제와는 다른 새로운 선율을 연주하는데, 8분음표로 이루어진 순차하행하고, 도약하여 상행되는 선율이다. 이 선율을 첼로와 피아노가 서로 주고받으며 진행되고, 선율의 단편을 변형시켜 반복한다[악보 1]

[악구도해 1]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제1주제



[악보 1]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1-16

마디17부터 첼로는 피아노가 제시했던 A부분의 제1주제를 변형시켜 연주한다. 악구a에서 등장했던 부점음가를 첨가하여 주제선율이 2마디 더 확장되어졌다. 피아노는 이음줄과 스타카토를 사용한 8분 음표 음형의 반주가 진행된다. 마디23에서 첼로가 A부분의 제1주제 악구a를 음역을 확대하여 변형하고, 이때 피아노는 셋잇단음표로 반주음형이 변화되어 첼로와 같은 선율을 가지고 진행된다. 마디27부터 한 번 더 반복하며 주제선율을 강조한다 [악보 2].

[악보 2]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17-30

The musical score is presented in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17 to 22. The cello part (bass clef) begins in measure 17 with a melodic line labeled 'A''. A bracket indicates a two-measure expansion ('2마디 확장') of the first subject motif. The piano accompaniment (treble and bass clefs) features eighth-note chords and patterns, with dynamics ranging from piano (*p*) to forte (*f*).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22 to 30. The cello part shows an expansion of the melodic range ('음역확대') and continues with the first subject motif ('같은선율진행'). The piano accompaniment includes triplets and is marked 'con anima'.

(2) 경과부

경과부는 마디31-60으로 제1주제의 음형요소를 사용하는 종속적 경과부이며, 제2주제 조성으로의 전조가 일어난다, 마디31에서 첼로가 스타카토와 악센트를 사용한 4마디 선율을 연주하는데, 강한 포르티시모의 악상으로 에너지와 역동성이 느껴진다. 피아노는 비화성음을 사용한 셋잇단음표 음형의 반주를 양손으로 같이 연주하며 진행하고 있다.

마디35부터 첼로가 연주하던 4마디 선율을 변형시켜서 피아노가 이어받고, 피아노의 셋잇단음표 반주를 첼로가 이어받으며 역할교환 된다[악보 3].

[악보 3]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31-38

35 비화성음  
역할교환  
f  
p

마디38후반에서 피아노가 코랄풍의 2마디 선율을 동형진행하며 반복한다. 이때 첼로는 반음계를 사용한 셋잇단 음형을 연주하며 색채적인 반주효과를 보여준다[악보 4]. 마디46후반부터 첼로가 코랄풍의 선율을 이어받아 연주하고, 피아노는 첼로가 연주했던 셋잇단 음형 반주를 연주하며 역할교환 된다.

[악보 4]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38-46

38 espress. cresc.  
p cresc.  
43 cresc. cresc.

마디51부터 피아노의 오른손에서 A부분의 제1주제 악구a를 단편적으로 연주하고, 마디53에서 첼로가 악구a를 모방한다, 마디55부터는 피아노 왼손에서 옥타브로 선율을 모방하여 연주한다[악보 5]. 마디55 중반부터 점점 크레센도 되며 다이내믹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디60에 이르러서는 콘포르자(Con forza)로 강하게 경과부를 강조하며 제2주제로 연결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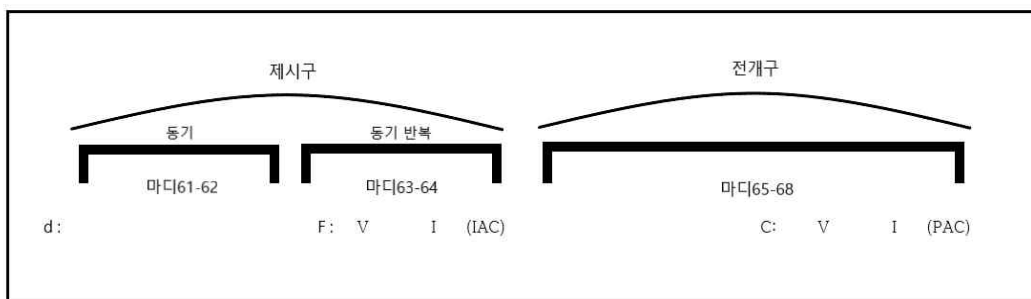
[악보 5]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51-56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51-56 of the first movement of the Cello Sonata No. 1. It is written in bass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The score includes a piano (p) dynamic at the beginning, followed by a crescendo (cresc.) leading to a forte (f) dynamic. The first subject motif 'a' is marked in the treble clef. The piano part features triplets and octaves, while the cello part imitates the piano's first subject motif. The score ends with a forte (f) dynamic.

(3) 제2주제부

제2주제부는 마디61-94로 첼로가 주제를 제시하는 부분(마디61-78)과 피아노가 주제를 제시하는 부분(마디79-94)으로 나누어진다. 제2주제는 2마디 동기가 두 번 반복되는 제시구(마디61-64)와 새로운 선율을 사용하여 주제를 진행하는 전개구(마디65-68)로 이루어진 ‘센텐스’<sup>25)</sup>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악구도해 2].

[악구도해 2]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제2주제



제시구는 마디61부터로 2분음표와 8분음표가 붙임줄로 이어진 긴 음가와 하행하는 선율로 이루어져있다. 악상은 포르테로 악센트를 함께 사용하여 강하게 등장한다. 전개구는 마디65부터로 순차 하행하는 2마디와 순차 상행하다가 2도 하행하는 부드러운 선율로 이루어져있다.

25) 통일성과 균형을 중시하던 고전시대의 미학이 잘 담긴 형식 단위가 있다. ‘센텐스’라고 부르는 이 형식은 고전시대 소나타의 주제(theme)를 담는 그릇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제시구에는 ‘기초악상’이라 불리는 ‘모티브’가 제시되며, 그것의 반복이 나타난다. 전개구는 기초악상을 이어가다가 종지에 도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기초악상을 작은 단위로 분절화 시켜 이를 가공하거나, 앞선 부분과 관련 없는 새로운 선율 요소를 제시해 흐름을 이어가기도 한다. 송무경,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 1』 (서울: 예술, 2018), 208.

제2주제의 조성은 d단조로 시작하지만 바로 c단조로 전조되어진다. 첼로의 주제선율과 동시에 피아노는 오른손에서 화음 연타를 사용하여 색채적인 화성의 기법을 보여주고, 왼손에서는 저음을 연주하며 베이스 성부를 채워주고 있다[악보 6].

[악보 6]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62-68

마디69에서 첼로가 제2주제 제시구 선율을 변형하여 연주한다. 마디73부터는 첼로가 제2주제 전개구 선율을 변형시켜 연주하는데, 순차적으로 상행 하면서 고음으로 향하고 2마디가 연장되어 6마디로 진행된다. 마디79부터는 피아노가 제2주제선율을 이어받아 연주하며 종결주제로 연결된다[악보 7].

[악보 7]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69-94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hree systems of staves. The first system (measures 69-78) shows the cello part with a melodic line that rises and is extended for two measures.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chords and arpeggiated figures. The second system (measures 79-86) continues the cello part with a melodic line that rises and is extended for two measures.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chords and arpeggiated figures. The third system (measures 87-94) shows the cello part with a melodic line that rises and is extended for two measures.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chords and arpeggiated figures.

(4) 종결주제

종결주제는 마디95-110이다. 피아노가 5마디의 코랄 풍 선율을 등장시키고, 마디100 부터는 제1주제 선율의 악구a를 변형시켜 연주한다. 첼로는 셋잇단 음형을 사용하며 반주역할을 한다[악보 8].

마디104 부터는 피아노의 왼손파트에서 제1주제 피아노선율을 옥타브로 연주하고 오른손에서 셋잇단 음형 반주를 사용하며 제1주제 요소를 상기시키고 있다.

[악보 8]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95-103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95 to 103. The cello line (bass clef) begins with a triplet of eighth notes, followed by a quarter rest, and then continues with more triplets. The piano accompaniment (treble and bass clefs) features a '코랄풍선율' (Coral-like melody) in the right hand, marked with a piano (p) dynamic. The left hand plays a '제1주제 악구a' (First subject phrase a) in the bass clef, marked with a forte (f) dynamic.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triplets, rests, and dynamic markings like 'cresc.'.

(5) 소중결부

소중결부는 마디111-137이다. 마디111부터 첼로가 제1주제 악구a 선율을 연주하고, 선율의 단편을 잘라 긴 음가를 사용하여 진행되고 있다. 첼로와 동시에 피아노의 왼손에서도 제1주제 악구a 선율을 옥타브로 연주하고, 피아노의 오른손은 16분음표 분산화음 반주로 진행된다[악보 9].

종결주제와 소중결부의 경계가 모호하지만 마디111부터 첼로와 피아노의 왼손파트에서 유니즌으로 제1주제의 악구a를 등장시키고 피아노 오른손파트의 반주음형이 셋잇단음표에서 16음표로 변화되어 소중결구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악보 9]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111-117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measures 111-117) features a cello part with a melodic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piano part has a 16th-note accompaniment in the left hand and a triplet accompaniment in the right hand. Dynamics include fortissimo (ff) and piano (p). The second system (measures 115-117) continues the piano accompaniment with a crescendo and piano dynamic.

마디120-122와 마디124-127에서 5도권 진행을 사용하여 색채적인 화성기법을 보여주고 있다[악보 10]. 마디124에서 첼로가 제1주제 악구a를 단편적으로 변형시켜 피아노의 여린 악상으로 시작하고, 선율을 반복된다. 마디134부터 으뜸화음을 연장시켜 사용하며 제시부 반복을 준비하고 있다.

[악보 10]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120-128

120

120

5도권 진행, 화성의 색채적 기법

V/dm V/gm V<sub>2</sub>/C V<sub>5</sub>/F

124

124

V/gm V/C V/F vii/gm V/C V/F

## 2) 발전부 분석

### (1) 제1부분

제1부분은 마디138-188로 제1주제 요소를 이용하여 발전된다. 마디138에서 첼로가 먼저 제1주제의 악구a의 선율을 연주한다. 마디142부터 피아노가 제1주제의 악구b의 선율을 연주하는데, 이 선율이 끝나기 전에 첼로가 스트레토(stretto)<sup>26)</sup> 기법을 사용하여 선율을 등장시킨다. 마디146에서 피아노도 스트레토를 사용하여 선율을 등장시킨다. 조성은 F장조로 등장하지만 바로 마디139에서 g단조로, 마디141에서 d단조로 전조되어진다[악보 11].

[악보 11]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138-149

제1주제 악구a

138

제1주제 악구b

F: I V/gm → i i V V/dm

제1주제 악구b

144

스트레토

스트레토

sf p sf 제1주제 악구b

26) 주제가 한성부에서 제시되고 뒤따르는 여러 성부들에서 모방되고, 이 모방이 원래 주제가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될 때 '스트레토'라고 한다.

M. Green Douglass, 「조성음악의 형식」, 박경중 역 (경기: 삼호뮤직, 1998), 313.

마디149 후반부터 제1주제부의 B부분 첼로선율이 등장한다. 4마디의 선율이 2번 변형반복(4+4)되고, 마디157 후반부터 선율이 압축되어 2마디씩 발전(2+2+2)된다. 마디163 후반부터는 2마디씩 반복(2+2+2) 되는데, 이때 첼로의 선율을 피아노의 오른손이 모방하여 함께 연주하고, 피아노의 왼손은 첼로 선율과 반진행한다[악보 12].

[악보 12]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149-169

The musical score is presented in three systems, each with a cello part (bass clef) and a piano part (treble and bass clefs).  
 - **System 1 (Measures 149-155):** The cello part begins at measure 149 with a 4-measure phrase. The piano part has a 4-measure rest, then enters at measure 150 with a piano (*p*) dynamic and a crescendo. The piano part features a 4-measure phrase that is repeated with a variation.  
 - **System 2 (Measures 156-162):** The cello part starts at measure 156 with a 2-measure phrase, followed by a 2-measure variation. The piano part has a 2-measure rest, then enters at measure 157 with a piano (*p*) dynamic and a crescendo. The piano part features a 2-measure phrase that is repeated with a variation.  
 - **System 3 (Measures 163-169):** The cello part starts at measure 163 with a 2-measure phrase, followed by a 2-measure variation. The piano part has a 2-measure rest, then enters at measure 164 with a piano (*p*) dynamic and a crescendo. The piano part features a 2-measure phrase that is repeated with a variation, ending with a triplet of eighth notes.

마디170부터 마디178까지는 3마디씩 발전(3+3+3)되는데, 첼로가 제1주제 악구a를 변형시켜 연주하고, 이때 피아노는 셋잇단 음형 반주를 사용한다. 마디173에서 첼로가 셋잇단 음형을 연주하고 피아노의 왼손에서 제1주제 악구a를 연주하며 역할교환이 일어난다[악보 13]. 마디176에서는 피아노의 오른손에서 제1주제요소를, 왼손에서는 셋잇단 음형을 연주한다. 마디170부터 마디178에서의 피아노와 첼로의 역할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한다[표 5].

[악보 13]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170-182

[표 5]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170-178의 역할관계

	첼로	피아노	
		오른손	왼손
마디170-172	제1주제요소 - 선율	셋잇단 음형 - 반주	
마디173-175	셋잇단 음형 - 반주		제1주제요소 - 선율
마디176-178		제1주제요소 - 선율	셋잇단 음형 - 반주

(2) 제2부분

제2부분은 마디189-198로 제2주제의 요소를 사용하여 발전된다. 마디189부터 피아노가 제2주제 제시구 선율을 두 번 연주한다.

마디197부터는 제2주제 전개구의 선율을 2마디로 압축시켜 보여준 뒤 바로 재경과부로 이어진다[악보 14].

[악보 14]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189-198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189 to 196. The piano part (right hand) features a melodic line with slurs and accents, while the cello part (left hand) provides a harmonic accompaniment with chords and moving lines. The annotation '제2주제 제시구 선율' is placed under the piano part.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197 to 198. The piano part continues with a similar melodic line, and the cello part has a more active accompaniment. The annotation '제2주제 전개구 선율압축' is placed under the piano part. Dynamics 'sempre f' and 'sf' are indicated throughout the score.

(3) 재경과부

재경과부는 마디199-218로 발전부를 마무리하고 재현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한 부분이며, 제시부의 경과부 요소와 종결주제 요소를 사용한다. 마디199에서 제시부의 종결주제선율이 A장조로 연주되고, 마디203후반부터는 경과부의 코랄 풍 2마디선율이 E<sup>b</sup>장조로 등장한다. 이때 첼로는 반음계를 사용한 셋잇단 음형을 연주하며 발전되어 진다[악보 15].

[악보 15]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199-206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99-206 of the Cello Sonata No. 1, first movement, is presented in bass clef. The cello part (top staff) begins with a triplet of eighth notes (G2, A2, B2) marked with *sf*. This is followed by a series of triplet eighth notes, with dynamics shifting to *p* and then *cresc.* The piano accompaniment (middle and bottom staves) features chords in the right hand and a cello-like pattern of eighth notes in the left hand. The piano part is annotated with *제시부 종결주제 선율* (Presentation section concluding theme melody) and *경과부 코랄풍 선율* (Development section coral-like melody). Dynamics include *sf*, *p*, and *espress.*

### 3) 재현부 분석

#### (1) 제1주제부

제1주제부는 마디219-250로 제1주제가 재현되는 부분이다. 제시부와 같은 A-B-A'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 마디219에서 피아노가 제1주제선율에 화음을 첨가하여 원조인 B<sup>b</sup> 장조로 재현한다. 이때 첼로는 B<sup>b</sup> 장조의 딸림음인 F음을 트릴로 연주하고 계속 F음을 지속하며 강조하고 있다[악보 16]. 마디227부터 첼로가 제1주제의 B부분 선율을 연주하는데, 제시부와는 다르게 4마디가 더 연장되어 12마디로 재현된다. 마디239부터는 제시부의 A'부분이 재현 된다. 마디249부터 2마디가 축소되어 경과부로 진행된다[악보 17].

[악보 16]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219-226

219 F음강조  
제1주제 선율  
cresc. sf  
V/B<sup>b</sup> → I

[악보 17]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245-250

2마디축소

(2) 경과부

경과부는 마디251-260이며, 제시부의 경과부에서처럼 제1주제 요소를 사용하는 종속적 경과부이다. 제시부에서의 경과부 길이가 30마디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재현부의 경과부는 10마디의 길이로 상당히 축소되었다. 마디251부터 피아노가 제1주제의 단편적선율을 변형시키고 확장하면서 진행된다[악보 18]. 마디259에서는 제시부의 마디60처럼 포르티시모의 강한 악상과 콘포르자(con forza)를 사용하여 경과부를 강조하며 제2주제부로 이어진다.

[악보 18]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251-255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251-255 of the first movement of the Cello Sonata No. 1. It consists of two staves: a cello staff (top) and a piano staff (bottom). The piano staff has a complex texture with triplets and a 'Cresc.' marking. A bracket labeled '제1주제 변형 선율' (First Theme Modified Melody) spans measures 251-255. Dynamics include 'f' and 'sf'.

(3) 제2주제부

제2주제부는 마디261-278로 제2주제가 재현되는 부분이다. 마디261부터 첼로가 제2주제를 재현하는데 원조의 나란한조인 g단조로 등장한다. 제시부와는 다르게 제2주제 선율을 피아노가 이어받아 연주하는 부분이 생략되고 바로 종결주제로 이어진다[악보 19].

[악보 19]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262-267

제2주제 선율

261 *f*

261 *f* *sempre*

*sf*

*p* *cresc.*

gm: i

(4) 종결주제

종결주제는 마디279-294이다. 마디279부터 피아노의 오른손에서 5마디의 코랄 풍 선율을 연주하고 제시부의 종결주제에서 첼로가 연주했던 셋잇단 음형 반주를 피아노의 왼손에서 연주하고 있다. 마디284부터는 제시부의 마디100이 재현된다. 첼로가 제1주제선율을 변형시켜 연주하고, 피아노는 셋잇단 음형을 양손이 같이 연주한다[악보 20].

[악보 20]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279-287

279

279

코랄 풍 선율

*p*

*cresc.*

셋잇단음형 반주

마디288에서도 제시부의 마디104가 재현되는데 피아노의 왼손에서 1주제 선율 음형을 연주하고, 오른손 파트는 경과부의 첼로 선율을 보여준다. 이때 첼로는 셋잇단 음형 반주를 사용한다.

(5) 소종결부

소종결부는 마디295-315로 제시부의 소종결부와 일치되게 재현된다. 마디 308부터는 제시부와 다르게 8마디가 연장되어 진행되며, 대종결부로 이어진다.

#### 4) 대중결부

대중결부는 마디316-348로 제1주제의 요소들을 계속 등장시킨다. 마디316에서 첼로가 제1주제 악구a 선율을 변형시켜 연주한다. 이때 피아노는 16음표의 분산화음을 사용하여 반주역할을 한다[악보 21]. 마디320부터는 피아노의 오른손에서 제1주제의 단편을 변형반복하며 확장된다. 이때 첼로는 B<sup>b</sup>음을 계속 지속하고, 마디322부터는 피치카토를 사용한다.

[악보 21]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316-321

마디330부터 제1주제 악구a 선율이 변형되어 다시 등장하는데, 첼로와 피아노가 선율을 3도 간격으로 연주한다. 피아노의 여린 악상으로 시작되고, 바로 다음마디부터 크레센도를 사용하며 원조인 B<sup>b</sup>장조로 돌아온다.

마디336에서 콘 푸오코(con fuoco)의 지시어처럼 곡이 정열적으로 진행되는데 첼로가 악센트와 스타카토를 사용한 선율을 연주하고, 피아노는 16분음표의 분산화음을 사용하며 빠른 속도의 느낌을 주며 화려하게 곡의 끝으로 향해간다. 마디346에서 으뜸화음을 사용하며 곡을 마무리한다[악보 22].

[악보 22] 첼로소나타 1번 제1악장 마디330-348

330 arco 제1주제 변형

330 3도간격 *p* *cresc.* *f* *cresc.* *sf* *sf* *sf* *con fuoco*

*p* *cresc.* *f* *cresc.* *sf* *sf* *sf* *p*

*cresc.* *sf* *sf* *sf* *con fuoco*

*cresc.* *f* *sempre cresc.*

337 *cresc.* *sf* *sf*

342 *sf* *sf*

g : i V i V i V<sub>6</sub> V/B<sup>b</sup> →

## 2.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분석

첼로소나타 2번의 제1악장은 제시부-발전부-재현부-대종결부(Coda)로 구성된 소나타 형식이다. 6/8박자의 알레그로 아사이 비바체(Allegro assai vivace)의 빠르기를 가진 D장조곡이다. 전체적으로 밝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띄고 있다.

제시부는 제1주제부, 경과부, 제2주제부, 소종결부로 나누어지고 조성은 제1주제가 D장조로, 제2주제는 원조의 딸림조인 A장조로 제시된다. 발전부는 제1부분, 제2부분, 경과부의 세부분으로 나뉜다. 제1부분에서는 제1주제를 A장조로, 제2부분에서는 제2주제를 C장조로 등장시킨다. 재현부는 제1주제부, 제2주제부, 소종결부로 이루어져있다. 제1주제부는 D장조로 제2주제부는 제시부와 다르게 원조인 D장조로 재현하고 있다. 대종결부는 제1부분과 제2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1악장의 전체 형식구성을[표 6]로 제시한다.

[표 6]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전체 형식구조

형식	세부형식	마디	주요조성
제시부	제1주제부	1-40a	D
	경과부	40b-67a	D
	제2주제부	67b-121	A
	소종결부	106-153	A
발전부	제1부분	154-198a	A
	제2부분	198b-249	C
	재경과부	250-261	E
재현부	제1주제부	262-280a	D
	제2주제부	280b-329	D
	소종결부	314-360a	D
대종결부	제1부분	360b-412	d
	제2부분	413-451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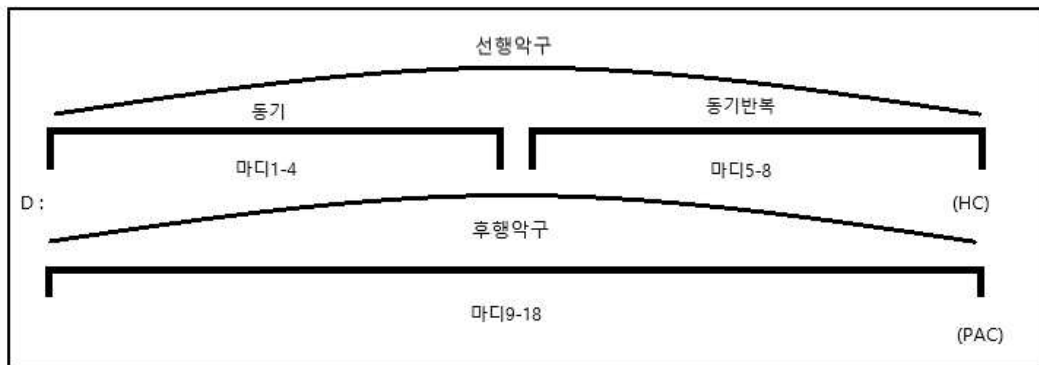
1) 제시부 분석

(1) 제1주제부

제1주제부는 마디1-40a로 주제를 첼로가 제시하는 부분(마디1-18)과 주제 선율을 피아노가 이어받아 확대되는 부분(마디19-40a)으로 나누어진다. 전주 없이 피아노와 첼로가 동시에 D장조로 시작되며 포르테의 악상으로 강하고 화려하게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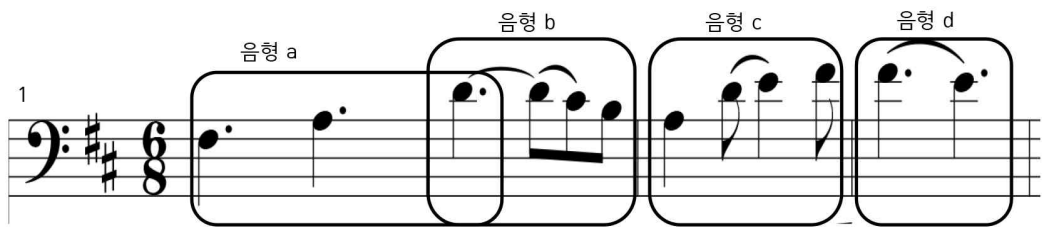
제1주제는 4마디 동기와 그 동기가 모방되어 반복되는 선행악구와 6마디의 후행악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1주제의 구조를 악구도해로 제시한다 [악구도해 3].

[악구도해 3]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제1주제



선행악구인 마디1부터 마디4에서 첼로의 주제 동기가 등장하는데, 도약상행 하는 선율과 순차하행 하는 선율과 당김음의 리듬을 사용하여 활기찬 느낌을 준다. 마디5부터 주제 동기를 한 번 더 반복한다. 선행악구의 동기는 4개의 주요음형으로 구성된다[악보 23].

[악보 23]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1-4 음형



음형a는 6/8박자의 점4분음표 3개의 리듬구성으로 으뜸화음의 3음, 5음, 8음을 상행으로 풀어준 선율이다. 음형b는 점4분음표와 8분음표가 붙임줄로 연결된 리듬구성으로 순차 하행하는 선율이며, 음형c는 4분음표와 8분음표 리듬구성으로 4도 도약 후 순차 상행한다. 음형d는 점4분음표 두 개의 리듬과 2도 순차 하행한다.

후행악구인 마디9부터 마디12에서는 주제 동기가 2마디씩 압축되어 동형 진행 되고, 마디13부터는 주제선율이 한마디로 압축되어 반복된다. 첼로가 하강하는 선율을 연주하며 주제가 마무리된다.

피아노는 첼로 주제선율에 대한 반주역할을 하고 있다. 피아노가 타악기적인 화음연타를 사용하여 화려하고 풍부한 음향의 느낌을 주고 있다. 마디 7부터 피아노 반주에 스포르잔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주제선율을 더욱 더 긴장감 있게 이끌어간다[악보 24].

[악보 24]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1-18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labeled '제1주제' (First Theme), shows the Cello part with a melodic line and the Piano part with a rhythmic accompaniment of chords. The second system, labeled '후행악구' (Delayed Passage), continues the Cello melody with specific annotations: '2마디 압축 + 동형진행' (2-measure compression + isometric progression) and '1마디 압축 + 동형진행' (1-measure compression + isometric progression). The Piano part continues with accompaniment, including a section marked '선율의 하강' (Descent of the Melody) and a dynamic marking of *ff*.

주제가 제시된 후 마디19부터 피아노가 첼로의 선행악구 선율을 이어받아 반복한다. 이때 피아노 왼손파트는 화음연타를 계속 사용하며 진행되고, 첼로는 저음을 연주하며 반주역할을 한다[악보 25].

[악보 25]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19-26

마디27에서 후행악구 선율이 2마디+2마디+1마디로 압축되어 진행되다가, 마디32부터 비화성음을 사용하며 점차 확대된다[악보 26]. 마디36후반부터 피아노가 16분음표의 화려한 아르페지오를 사용하여 화음을 풀어내고, 두 악기가 같이 제1주제부를 마무리하며 D장조의 딸림음으로 진행되는 경과부에 이른다.

[악보 26]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27-34

(2) 경과부

경과부는 마디40b-67a로 제2주제 조성으로의 전조가 일어나며, 제1주제의 음형요소를 사용하는 종속적 경과부이다. 마디40중반부터 마디43까지 첼로가 제1주제 동기의 음형 요소를 사용하여 4마디 선율을 연주한다. 마디44에서 피아노가 첼로선율을 이어 받아 진행되고, 마디48에서 이를 한 번 더 반복한다. 이때 첼로와 피아노 사이에 반진행이 나타나고, 마디50부터는 2마디 단위로 피아노와 첼로가 서로 주고받는 대위법적 모방이 보여 진다[악보 27]. 마디59후반부터는 피아노가 독립적으로 연주하는 부분으로 4마디 선율이 반복되는데, 제2주제의 조성인 A장조로 제2주제부의 조성을 예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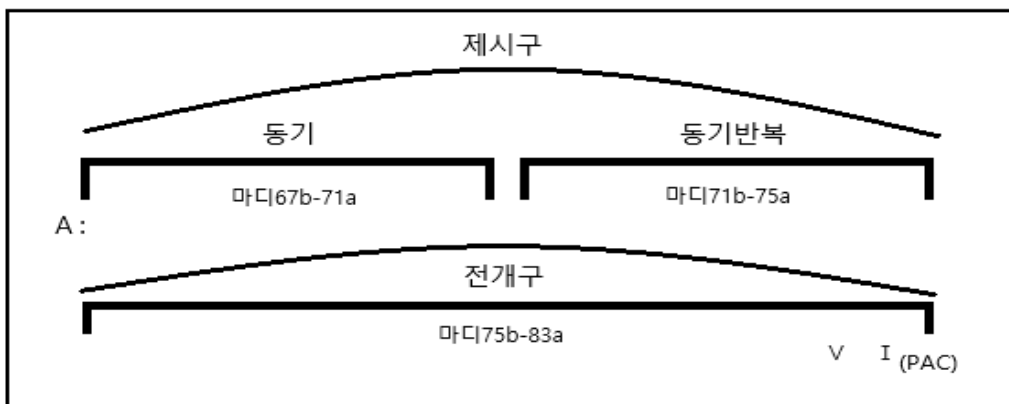
[악보 27]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40-58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40-58 of the Cello Sonata No. 2, First Movement, is presented in a grand staff format. The cello part is on the bottom staff, and the piano part is on the top two staves. The key signature is G major (one sharp)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score includes several annotations: '반진행' (retrograde motion) is indicated at measures 40-43 and 44-47, where the piano part plays the cello's melodic line in reverse. '대위법적 모방' (imitation) is noted at measures 50-53, showing the piano and cello parts exchanging the melodic motif. Dynamics include *fp* at measure 40, *p* at measure 48, and *sf dim.* at measure 53. Crescendo markings (*cresc.*) are used at measures 44, 48, 50, and 52.

(3) 제2주제부

제2주제부는 마디67b-105로 첼로가 제2주제를 제시하는 부분(마디 67a-83a)과 피아노가 주제선율을 이어받아 확대되는 부분(마디83b-105)으로 나누어진다. 제2주제의 조성은 원조의 5도위인 A장조로 제시되고, 제1주제와는 다르게 피아노의 여린 악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의 선율을 연주한다. 제2주제의 구조를 악구도해로 제시한다[악구도해 4].

[악구도해 4]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제2주제



제시구인 마디67후반부터 제2주제 선율을 첼로가 연주하는데, 제1주제의 도약상행+순차하행 하는 선율과 리듬을 변형시켜 사용한다. 마디71후반부터 첼로의 주제선율이 그대로 한 번 더 반복되고, 피아노는 첼로주제를 화성적으로 감싸며 반주역할을 하고 있다.

전개구인 마디75b-83b의 첼로선율도 제1주제의 음형 요소를 사용한 선율로 2마디씩 변형시켜 반복(2+2)하고, 마디80부터는 순차하행하고 변형되는 4마디 선율로 이루어진다[악보 28].

[악보 28]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67-83

제2주제 제시구

동기 동기반복

제2주제 전개구

변형반복 순차하행

마디83 후반부터는 첼로가 제시한 주제의 전개구 선율을 피아노가 단편적으로 이어받아 보여주고, 이때 첼로는 베이스 성부를 보강한다[악보 29]. 마디91부터 피아노가 독립적으로 확대되고, 마디102부터는 16분음표음형의 분산화음을 사용하여 소중결구로 진행된다.

[악보 29]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83b-91

(4) 소중결구

소중결구는 마디106-153로 첼로가 제1주제 선율을 등장시키는 부분(마디 106-121)과 피아노가 제1주제 선율을 변형시켜 발전부로 연결되는 부분(마디122-153)으로 나뉜다. 마디106부터 첼로가 제1주제의 선행악구 선율을 변형시켜 A장조로 등장하는데, 마디110에서 한 번 더 반복하며 제1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마디114부터 다시 제1주제의 선행악구 선율을 변형시켜 진행된다. 피아노는 제1주제에서 보여준 코드중심의 반주가 아닌 제2주제 후반(마디102)부터 이어오던 아르페지오 반주음형으로 계속 이어진다[악보 30].

[악보 30]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106-121

제1주제 선행악구 선율변형

106

106

leggiero

p

sf

cresc.

f

A: I

제1주제 선행악구 선율

114

114

p

아르페지오

cresc.

sf

p

cresc.

마디122에서 피아노가 수직적인 화음과 리듬을 발전시킨 제1주제의 선율을 반복하며 종결구를 강조하고 있다. 마디127부터 긴 음가를 사용하여 느린 느낌을 주고, 첼로는 제1주제에서 등장했던 피아노의 트레몰로 음형의 반주를 반음계적 화성진행을 사용하여 빠른 느낌을 주고 있다[악보 31]. 마디137부터 피아노와 첼로에서 A음의 반복이 일어나며 발전부로 진행되어진다[악보 32].

[악보 31]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122-130

122

*f* < *sf* > < *sf* > *dim.* *fp* *fp* *fp* *fp*

122 *f* 제1주제 변형선율 *sf* *dim.* 긴음가사용

A: I

[악보 32]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137-144

137 *pp*

137 *pp* A음 강조 < *sf* > < *sf* >

## 2) 발전부 분석

### (1) 제1부분

제1부분은 마디154-198로 제1주제의 요소를 이용하여 발전시켰다. 첼로와 피아노가 서로 주고받는 부분(마디154-173)과 첼로가 독립적으로 발전되는 부분(마디174-198a)로 나눌 수 있다.

마디154부터 첼로가 먼저 제1주제 선형악구의 4마디 동기를 변형한 선율을 연주한다. 마디154-157, 마디158-161, 마디162-165는 음형a+b+b+d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마디166부터는 두 마디 단위로 진행된다. 마디166-167은 음형a+b의 구조를, 마디168-169는 음형a+d의 구조이다. 마디170-171은 음형c+b, 마디172-173은 음형c+d의 구조이다.

변형된 선율은 첼로와 피아노가 서로 주고받으며 진행되는데, 이때 선율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트레몰로음형의 반주도 서로 주고받으며 연주하며 성부교환이 이루어진다. 마디166부터는 2마디씩 첼로와 피아노가 서로 멜로디를 주고받으며 발전되어진다. 마디154부터 마디173의 음형구조를 [악보 33]과 [표 7]로 제시한다.

[악보 33]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154-173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54-173 of the Cello Sonata No. 2, First Movement, is presented in two systems. The top system shows the cello part (arco) with a melodic line divided into four measures, each labeled with a motif letter: 'a', 'b', 'b', and 'd'. The bottom system shows the piano accompaniment, with the right hand playing a treble clef and the left hand playing a bass clef. The piano part includes dynamics such as *pp*, *cresc.*, *p*, and *f*. The score is marked 'A: I \*' at the bottom left.

[표 7]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154-173 선율음형구조

마디	음형구성	악기
154-157	a b b d	첼로
158-161	a b b d	피아노
162-165	a b b d	첼로
166-167	a b	피아노
168-169	a d	첼로
170-171	c b	피아노
172-173	c d	첼로

마디174에서는 첼로가 제1주제 음형을 변형한 선율을 독립적으로 이어가고, 이때 피아노는 아르페지오음형 반주로 진행된다. 마디177과 마디185에서 음형c를 역행하는 선율로 변형하였고, 마디180과 마디181에서는 음형c의 전반부와 음형b의 후반부를 변형하여 보여준다. 마디190은 음형c를 8분 쉽표를 사용하여 변형시켰고, 마디192와 마디194는 음형c의 멀어진 변형이다. 마디196은 음형d를 8음표를 첨가하여 변형시켰다. 마디174부터 마디198의 첼로선율의 음형구조를 악보로 제시한다[악보 34].

[악보 34]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174-198 첼로선율

발전부 제1부분의 조성은 원조인 D장조의 딸림조인 A장조로 시작하지만, 바로 마디155에서 e단조로 전조된다. 마디166에서 f#단조로 전조되며 계속 발전되고 있다. 마디190부터는 제1주제의 음형c와 음형d를 계속 변형시키고 반복하다가 마무리하며 제2부분으로 진행된다.

(2) 제2부분

제2부분은 마디198b-249로 제2주제의 요소를 이용하여 발전시켰다. 마디 198후반부터 피아노가 제2주제 제시구 선율을 C장조에서 연주한다. 피아노의 선율이 끝나기 전에 이어서 첼로가 스트레토(Stretto)기법을 사용하여 이어받는다. 마디207부터는 첼로가 제2주제의 전개구 4마디 선율을 먼저 연주하고 마디211부터 피아노가 이어받아 연주한다[악보 35].

[악보 35]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198-214

198 제2주제 제시구선율 스트레토

198b

C : V

207 제2주제 전개구선율

207

p cresc.

마디214후반부터 다시 첼로가 제2주제 전개구 선율을 이어받아 연주하는데, 선율이 점차 상승하며 G음까지 도달한 뒤 순차하행하며 선율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때 피아노의 선율도 같이 상승된다. 마디226후반부터 피아노가 첼로의 선율을 양손으로 주고받으며 반복한다[악보 36]. 마디239에서부터는 피아노가 베이스성부의 하강진행을 보여주며 경과부로 진행된다[악보 37].

[악보 36]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214-231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214-231 shows the cello and piano parts. The cello part begins at measure 214 with a melodic line that rises to a G note (circled) and then descends. The piano accompaniment consists of chords and arpeggios. Dynamics include p, cresc., and f. Annotations include '상승' (ascending) and '순차하행' (sequential descending).

[악보 37]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239-249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239-249 shows the cello and piano parts. The cello part begins at measure 239 with a melodic line that descends. The piano accompaniment consists of chords and arpeggios. Dynamics include pp, cresc., and f. Annotations include '음형 a' (form a) and chord symbols A, G, F, E, D#, C, B.

(3) 재경과부

재경과부는 마디250-261로 발전부를 마무리하고 재현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한 부분이다. 마디250부터 첼로가 제1주제 선형악구 선율을 연주하고, 마디255부터는 점2분음표 음가와 스포르잔도를 사용하며 선율을 강조하며 진행된다. 마디250에서 여린 피아노의 악상으로 시작하여 포르티시모까지 급박하게 도달하는데, 트레몰로와 화려한 아르페지오 음형을 사용하여 반주역할을 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악보 38].

[악보 38]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250-260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250-260 of the Cello Sonata No. 2, First Movement, is presented in two systems. The top system shows the cello part, which begins with a first theme (제1주제선율) marked 'p' at measure 250. The bottom system shows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ing a tremolo bass line and arpeggiated chords. Dynamics include 'p', 'sf', 'cresc.', and 'sf'.

### 3) 재현부

#### (1) 제1주제부

제1주제부는 마디262-280a로 제1주제가 재현되는 부분이다. 마디262부터 첼로가 제1주제 선형악구를 약간 변형시켜 원조인 D장조로 재현시키고, 피아노는 재경과부에서 부터 진행되던 아르페지오반주 음형과 화음트레몰로 음형을 번갈아가며 역동적인 느낌을 전달하며 진행된다. 제시부에서의 피아노가 주제를 이어받아 확대되는 부분이 생략되었다[악보 39].

[악보 39]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262-269

262 제1주제재현

262 아르페지오 + 화음트레몰로 *sf*

D: I

#### (2) 제2주제부

제2주제부는 마디280-313로 제시부의 경과부가 생략되고 바로 진행된다. 마디279후반 제2주제가 피아노에서 먼저 재현하는데, 첼로가 발전부에서 사용했던 스트레토(Stretto)를 사용하여 등장한다. 제시부에서 제2주제가 원조

의 딸림음인 A장조로 제시된 것과는 다르게 원조인 D장조로, 첼로가 아닌 피아노에서 먼저 등장시키고 있다[악보 40].

[악보 40]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279-283

D :

마디287후반부터 계속 피아노가 제2주제의 전개구의 선율을 재현하고, 첼로는 베이스 성부를 채워주고 있다. 다시 첼로가 마디294부터 선율을 이어 받아 소중결구로 진행되어 진다. 제시부와 재현부의 제2주제 구성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8].

[표 8]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제시부와 재현부 제2주제 구성 비교

제시부			재현부		
마디	선율	악기	마디	선율	악기
67b-75a	제시구	첼로	279a-287a	제시구	피아노
			281b-287	제시구(단편)	첼로(스트레토)
75b-83a	전개구	첼로	287b-295	전개구	피아노
83b-91a	전개구(변형)	피아노	295b-303	전개구(변형)	첼로
91b-100a	독립선율	피아노	304-309	독립선율	첼로

### (3) 소중결부

소중결부는 마디314부터 마디360초반이다. 제시부의 소중결부가 그대로 재현되는데, 첼로가 제1주제 동기를 재현하는 마디314-329와 피아노가 제1주제 동기를 변형시켜 재현하는 부분인 마디330-360a로 나누어진다. 제시부의 소중결구는 A장조로 등장했지만 재현부에서는 D장조로 등장한다.

### 4) 대종결부(Coda)

대종결부(Coda)는 마디360b-451이다. 제1부분(마디360b-412)과 제2부분(마디413-451)으로 나누어질 만큼 굉장히 확대되어있다.

제1부분은 마디360 후반부터 피아노가 발전부에서 등장했던 제2주제 전개구의 선율을 등장시키는데, 반복하며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 첼로는 제1주제의 음형a를 단편적으로 등장시킨다. 마디379부터 첼로가 제1주제 선율을 E<sup>b</sup> 장조로 연주하다가 마디397부터 피아노가 D장조로 이어받는다. 피아니시모의 여린 악상으로 시작하여 점점 커지며 확대되고, 첼로는 화음트레몰로로 반주역할을 하며 제2부분으로 이어진다.

제2부분인 마디413부터 첼로가 제1주제를 계속 이어받아 연주하는데, 3성부 화음과 포르티시모의 강한 악상 위에서 화려하게 시작되고 있다. 피아노는 아르페지오 음형을 사용하며 선율에 대한 반주역할을 하고 있다. 마디435부터 D장조의 으뜸화음으로 제1주제가 단편적으로 등장하고, D음을 강조하며 종지를 연장하다가 화려하게 곡을 마무리한다[악보 41].

[악보 41] 첼로소나타 2번 제1악장 마디435-451

435 제1주제선율 D음강조

3성부화음

443

443

ff sf sfz ff

### 3. 첼로소나타 1번과 2번의 제1악장 비교

멘델스존의 첼로소나타 1번과 2번의 제1악장은 제시부-발전부-재현부-대종결부의 소나타형식으로 구성된다. 1번은 Allegro Vivace의 4/4박자를, 2번은 Allegro assai vivace 6/8박자를 가지고 있다. 두곡 모두 전주 없이 첼로와 피아노가 동시에 시작된다.

#### 1) 제시부 비교

1번의 제1주제는 B<sup>b</sup> 장조로 여린 악상으로 부드럽게 시작되지만, 2번은 D 장조로 강한 포르테 악상으로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시작되며, 두 주제가 대조적인 성격을 보인다. 1번의 제1주제는 2개의 대조약구(a+b)로 이루어져 있고, 2번의 제1주제는 4마디의 선행약구와 6마디의 후행약구로 이루어져 있다. 1번은 피아노가, 2번은 첼로가 먼저 제1주제를 제시한다. 1번의 제1주제부는 피아노가 주제를 제시하는 A부분과 첼로가 새로운 선율을 등장시키는 B부분, 그리고 첼로가 주제를 확장시켜가는 A'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반면 2번의 제1주제부는 주제를 첼로가 제시하는 부분과 피아노가 주제를 이어받아 확대되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표 9].

[표 9] 제시부 제1주제부 비교

내용	첼로소나타 1번	첼로소나타 2번
제1주제 조성	B <sup>b</sup> 장조	D 장조
제1주제 악상	p(피아노)	f(포르테)
제1주제 구조	대조약구(a+b)	선행약구+후행약구
제1주제 제시 악기	피아노	첼로
제1주제부 구성	세 부분	두 부분

두 첼로소나타의 경과부는 제1주제의 요소를 사용하며 제2주제의 조성으로 전조가 일어나는 종속적 경과부이다. 1번의 제2주제는 d단조로, 포르테의 악상으로 악센트와 스포르잔도를 사용하여 강하게 등장하고, 바로 c단조로 전조된다. 2번은 원조의 딸림조인 A장조로 피아노의 악상으로 여리고 부드럽게 시작지만 점차 커지고, 스포르잔도를 사용하여 선율을 강조한다. 제2주제는 제1주제와는 반대로 1번에서 여리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 2번에서 강한성격의 제2주제를 등장시키며 대조를 보인다.

1번과 2번의 제2주제는 둘 다 센텐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두곡 다 첼로가 먼저 제2주제를 제시한다. 1번과 2번의 제2주제부 모두 첼로가 주제를 제시하는 부분과 피아노가 이어받아 확대되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표 10].

[표 10] 제시부 제2주제부 비교

내용	1번	2번
제2주제 조성	d단조	A장조
제2주제 악상	f(포르테)	p(피아노)
제2주제 구조	센텐스	센텐스
제2주제 제시 악기	첼로	첼로
제2주제부 구성	두 부분	두 부분

1번의 종결주제는 15마디의 길이로 새로운 코랄 풍의 선율을 등장시키고, 이어 1주제의 음형을 변형한 선율을 연주한다. 2번은 종결주제가 없이 소중결부로 이어진다.

1번의 소중결부는 제1주제의 선율을 변형시키고 반복하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16분음표의 분산화음 반주와 5도권 진행을 통하여 색채적인 화성 기법을 보여준다. 2번의 소중결부에서도 제1주제의 선율을 등장시키고 반복하며 진행되고, 아르페지오음형 반주를 지속하고 있다[표 11].

[표 11] 제시부 소중결부 비교

내용	1번	2번
선율의 구성 요소	제1주제 변형 반복	
반주의 구성 음형	16분음표 분산화음	아르페지오

## 2) 발전부 비교

1번의 제1주제부는 제1주제의 선율을 변형시켜 스트레토 기법을 사용하여 발전시키고, 2번은 제1주제 선율의 음형을 단편적으로 변형시켜 첼로와 피아노가 서로 주고받으며 발전되어진다.

1번의 제2주제부는 제2주제의 선율을 변형하고, 다시 압축시켜 보여준다. 2번은 제2주제 선율을 스트레토를 사용하여 발전시킨다. 1번과 2번 모두 제2주제의 요소를 사용 하였다.

1번의 재경과부는 제시부의 경과부와 종결주제 요소를 등장시키고, 셋잇단 음형의 반주를 사용한다. 2번의 재경과부는 제1주제의 선율을 긴 음가와 스포르잔도를 사용하여 강조하고, 아르페지오음형 반주를 사용한다[표 12].

[표 12] 발전부 비교

부분	내용	1번	2번
제1부분	구성요소	제1주제	
	사용기법	변형, 스트레토	단편변형
제2부분	구성요소	제2주제	
	사용기법	압축변형	스트레토
재경과부	구성요소	제시부의 경과부, 종결주제	제1주제
	반주음형	셋잇단음표	아르페지오

### 3) 재현부 비교

1번의 재현부는 제1주제를 화음을 첨가하여 피아노가 원조인 B<sup>b</sup>장조로, 2번은 제1주제 선율을 변형시켜 첼로가 원조인 D장조로 재현한다. 1번은 제시부 제1주제부의 B부분 선율이 4마디 연장되어 재현되고, A'부분은 2마디가 생략되어 나타난다. 2번은 제시부에서의 피아노가 주제를 확대시키는 부분이 생략된다[표 13]

[표 13] 재현부 제1주제 비교

내용	1번	2번
재현 조성	B <sup>b</sup> 장조	D장조
재현 조성	화음을 첨가, 선율의 연장과 생략	선율을 변형, 생략
재현 악기	피아노	첼로

1번의 경과부는 1주제요소를 사용하는 종속적 경과부이며, 제시부의 경과부보다 길이가 축소되었다. 반면에 첼로소나타 2번의 경과부는 생략되었고, 제1주제부에서 제2주제부로 이어진다.

1번의 제2주제부는 제2주제를 첼로가 원조의 나란한조인 g단조로, 2번은 피아노가 원조인 D장조로 등장시킨다. 1번은 제시부에서 피아노가 제2주제 선율을 이어받는 부분은 생략되고, 2번에서는 스트레토 기법을 사용한다[표 14].

[표 14] 재현부 제2주제 비교

내용	1번	2번
재현 조성	g단조	D장조
재현 악기	첼로	피아노

1번의 종결주제는 제시부의 종결주제요소가 다시 재현되고, 2번은 종결주제가 없다. 두곡의 소종결부는 제시부에서의 소종결부가 그대로 재현되고, 조성도 원조로 나타난다.

#### 4) 대종결부 비교

1번과 2번의 대종결부는 제1주제의 요소들을 변형, 반복하며 확장되어진다. 1번의 피아노는 16분음표 분산화음 반주를 지속하고, 2번은 아르페지오 음형반주를 사용한다.

## IV. 결 론

멘델스존은 첼로소나타를 두 개 작곡하였다. 첼로소나타 1번은 그가 성숙기인 1838년에 작곡 하였고, 2번은 완숙기인 1838년에 작곡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첼로소나타 1번과 2번의 제1악장을 분석하고, 비교 하였다. 첼로소나타 1번과 2번은 모두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대종결부로 이루어진 소나타 형식이다.

첼로소나타 1번의 제1악장은 전주 없이 첼로와 피아노가 동시에 B<sup>b</sup> 장조로 곡이 시작된다. 제시부의 제1주제는 2개의 대조악구로 이루어진 부드럽고 우아한 선율로 제시된다. 경과부는 제1주제의 음형요소를 사용하는 종속적 경과부이다. 코랄풍의 선율과 셋잇단 음형에 반음계를 사용한 색채적인 반주효과를 보여준다. 제2주제는 ‘센텐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1주제와 다르게 강한악상을 가지고 d단조로 등장한다. 종결주제와 소종결부에서는 1주제의 선율을 계속 보여주며 발전부로 진행된다.

발전부의 제1부분은 제1주제를 계속 변형시키며, 스트레토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제2부분은 제2주제선율을 변형하고 압축시켜 보여준다. 재경과부에서는 제시부의 경과부와 종결주제 요소들이 등장하여 발전되어진다.

재현부의 제1주제는 원조에서 재현되며, 주제의 선율을 연장시키거나 생략된다. 경과부는 길이가 축소되어 제2주제로 진행된다. 종결주제는 첼로와 피아노가 역할 교환하며 재현하고, 소종결부는 8마디가 연장되어 나타난다. 대종결부는 1주제의 요소들을 계속 변형시켜 반복하여 보여주면서 곡을 마무리한다.

첼로소나타 2번의 1악장도 전주 없이 첼로와 피아노가 동시에 시작된다. 제시부의 제1주제는 첼로가 선행악구와 후행악구의 구조를 가진 선율을 포르테의 악상을 가지고 화려하게 제시한다. 경과부는 제1주제의 음형요소를

사용하는 종속적 경과부이며, 첼로와 피아노가 서로 주고받는 대위법적 모방이 보여 진다.

제2주제는 여린 악상을 가진 부드러운 선율로 제시되며, 원조의 딸림조인 A장조로 등장한다. 소중결부는 확대되어 길이가 길고 조성과 반주형태만 달리한 채 거의 제1주제와 유사하다.

발전부의 제1부분은 제1주제의 선율음형을 변형하여 보여주고, 제2부분은 제2주제의 선율을 스트레토 기법을 사용하여 보여준다. 재경과부는 제1주제 선율과 트레몰로와 아르페지오의 화려한 반주와 함께 발전된다.

재현부의 제1주제는 첼로가 선율을 변형시켜 원조로 재현하고, 제시부와 같이 피아노가 주제를 이어받는 부분은 생략되었다. 경과부는 생략되어 제2주제로 이어진다. 제2주제를 피아노가 먼저 스트레토 기법을 사용하여 재현한다. 제시부에서 제2주제가 A장조로 제시된 것과 다르게 원조인 D장조로 등장한다. 소중결부는 제시부의 소중결부가 그대로 재현되는데 조성은 제시부의 A장조가 아닌 D장조로 등장한다.

대중결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질만큼 길이가 굉장히 확대되어있다. 앞에서 등장했던 제1주제와 제2주제요소를 등장시키는데 특히 제1주제를 반복하며 발전시켜나간다. 원조인 D장조의 I 도 화음과 음을 강조하며 화려하게 곡을 마무리 한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먼저 두 곡을 구성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멘델스존 첼로소나타 1번과 2번 모두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의 곡이다. 주제의 성격에 있어, 1번과 2번의 두 주제의 성격이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강한 셈여림으로 시작하는 주제는 1번에서 제2주제에, 2번에서는 1주제에서 보여 진다. 주제의 구성에 있어서는, 1번의 제시부 제1주제는 2개의 대조 악구로 이루어진 선율을 피아노가 먼저 제시하고, 제2주제는 센텐스의 구조의 선율을 첼로가 제시한다. 2번의 제1주제는 선행악구와 후행악구로 이루

어져있고, 제2주제는 센텐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첼로가 먼저 제시한다. 센텐스와 대조약구는 고전시대 소나타의 주제에 자주 사용되던 형식으로, 멘델스존이 전통양식을 따르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진다. 1번의 제시부와 재현부에는 종결주제가 있고, 2번에는 종결주제가 없다.

발전부에서는 두 곡 모두 제1부분에서는 1주제의 요소를, 제2부분에서는 제2주제의 요소를 보여주고, 스트레토기법을 사용하여 주제선율을 압축, 변형시키고 있다. 재현부에서는 두 곡 모두 주제선율을 확대하거나 생략한다. 2번의 재현부에서는 경과부가 생략되고, 소종결부와 코다가 길게 확대되어 있다. 대종결부에서는 1번과 2번 모두 주로 제1주제의 요소를 사용하며 곡을 마무리한다.

두 곡을 조성적으로 비교해보면 1번의 제시부에서 제1,2주제는 B<sup>b</sup>장조-d단조로, 재현부에서 제1,2주제는 B<sup>b</sup>장조-g단조로 3도 관계 조성구조를 보여주며 낭만적인 요소를 드러낸다. 2번의 제시부에서 제1,2주제는 D장조-A장조로, 재현부에서 제1, 2주제는 D장조-D장조로 전형적인 조성구조를 가지고 있다.

멘델스존은 소나타 형식과 주제를 고전시대의 전통적인 양식인 센텐스 구조와 대조약구를 사용하며 전통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그 속에 구성된 도약 순차하는 선율, 비화성음의 사용, 장단조의 혼용, 아르페지오와 셋잇단 음표의 색채적인 반주 기법 등 음악적인 구성에서 낭만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참 고 문 헌

### 1. 사전 및 단행본

Douglass, M. Green. *Form in Tonal Music*, 박경중 역. 『조성음악의 형식』. 경기: 삼호뮤직, 1998.

Grout, Donald Jay, Palisca, Claude V, Burkholder, J. Peter, *A History Of Western Music*, 제7판 민은기, 오지희, 이희경, 전정임, 정경영, 차지원 역.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하권』. 서울: 이앤비플러스, 2007.

Neil Wenborn, *Mendelssohn His Life and Music*, 김병화 역. 『멘델스존, 그 삶과 음악』, 서울: 포토넷, 2010.

Nicole Grimes, Angela Mace. *Mendelssohn Perspectives*, New York: Routledge, 2016.

Todd, R. Larry. “Mendelssohn, Felix: Work”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Stanley Sadie, 2nd Edition, Edited by Stanley Sadie, London: Macmillan, 2001. Vol. 16: 410-412.

Todd, R. Larry. *Mendelssohn: A Life in Musi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Todd, R. Larry. *Mendelssohn essays*, New York: Routledge, 2013.

김용환, 『모두를 위한 서양음악사 2』. 서울: 가람기획, 2017.

김용환, 『서양음악사 시리즈 19세기 음악』. 서울: 모노폴리, 2018.

민은기, 박을미, 오이돈, 이남재, 『서양음악사2』. 파주: 음악세계, 2014.

- 민은기, 심은섭, 오지희, 이미배, 이보경, 이서현, 이재용, 홍청의, 『펠릭스 델스존 전통과 진보의 경계』 . 서울: 음악세계, 2009.
- 송무경,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 1』 . 서울: 예술, 2018..
- 차호성, 오희숙, 『들으며 배우는 관현악문헌 실내악 1』 . 서울: 심설당, 2003.
- 허영한, 김문자, 권송택, 박미경, 신인선, 이석원, 주대창, 허영한, 『새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본문2』 . 서울: 심설당, 2009.
- 홍세원, 『서양음악사Ⅱ』 .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 2』 . 파주: 나남, 2016,

## 2. 학위논문

- 오아미, “Felix Mendelssohn의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D major op.58에 관한 분석 및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이수연, “Felix Mendelssohn Cello Sonata, Op. 58, No. 2에 관한 연구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이현미, “멘델스존 《첼로소나타 제2번》 분석연구 : 주제와의 관계로 본 《첼로소나타 제2번》 제1악장의 연주해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장지원, “F. Mendelssohn Cello Sonata, Op. 58, No. 2 에 관한 분석 및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추호선, “Felix Mendelssohn cello sonata No.2, Op.58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태순애, “Mendelssohn Cello sonata No.2, D Major, op58에 관한 연구 분

석”,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홍보경, “F. Mendelssohn Cello sonata no. 2, op. 58에 대한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3. 악보 및 음반

Mendelssohn, *Sonata for Piano and Violoncello in B<sup>b</sup> Major op.45*,  
München: G. Henle Verlag, 2001, Edited by Rudolf Elvers,  
Ernst Günter Heinemann.

Mendelssohn, *Sonata for Piano and Violoncello in D Major op.58*,  
München: G. Henle Verlag. 2001, Edited by Rudolf Elvers,  
Ernst Günter Heinemann.

Felix Mendelssohn - *Cello Sonatas / Variations / 7 Songs without  
word*, Mischa Maisky & Sergio Tiempo, 2002, Universal  
Classics.

# ABSTRACT

## A Comparative Analysis of Cello Sonata No. 1 and No. 2 in Mendelssohn

Jee-Hye Gil

Department of Collaborative Piano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goal of this paper was to compare two cello sonatas after analyzing the first movement of Cello Sonata No.1(Op.45) and No.2(Op.58) of German composer Felix Mendelssohn(1809 - 1847) respectively. He composed two cello sonatas, one written in 1838, and two in 1843. Both songs were composed for his younger brother Paul Mendelssohn(1812-1874).

The first movement of Cello Sonata No.1 is a typical sonata type. The Primary theme is that the piano is composed of two contrasting instruments and presents a soft and elegant melody in B minor major. The secondary theme is the structure of the sentence. Unlike the primary theme, it is characterized by the appearance of a three-way relationship in d minor form rather than a traditional composition

structure

Development is divided into two parts, part 1 of which is developed, and part 2 of which is centered on the element of subject 2. The Ministry of Recapitulation is the primary and secondary themes of the B major, extending, omitting and reproducing. Coda continues to modify and repeat the elements of the first theme, finishing the song.

The first movement of Cello Sonata No.2 is also in the form of Sonata. The primary theme presents the active melody of the D major in Forte, while the secondary theme is the soft melody of Chapter A. The primary theme is composed of the Antecedent phrase and Consequent phrase, and the second theme have the structure of the Sentence.

Development is developed into two parts, and the first and second parts are developed by modifying the melody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subjects respectively. The primary and secondary of the recapitulation are reproduced by modifying the melody with the aid of D major. Coda is divided into two parts, which continues to represent the primary and secondary topics that appeared earlier. In particular, they finish the song by repeating the first theme. If you compare the first movement of Cello Sonata no.1 and the no.2, although the nature of the two topics is in contrast, strong themes appear in the primary and secondary topics.

Structurally, the primary theme was the piano composed of two control instruments, and the secondary was the sentence structure. The primary The primary theme is composed of the Antecedent phrase and Consequent phrase, and the second theme have the structure of the

Sentence.

Both songs show the development of elements of the primary theme from the first part and the second part of the theme. Exposition and recapitulation of the primary theme and secondary theme key relationships shown in B b Major to D minor at the Cello sonata no.1 exposition which is common minor 3<sup>rd</sup> relationship in 19<sup>th</sup> century and Cello sonata no.2 exposition shown D Major to A minor, D Major to D Major which is the different key structure.

Mendelssohn follows traditional forms in the form of sonata and the structure of the subject, but shows the sequential melody, the use of non-fire sounds, the combination of rhythm, and the color of Arpezio and set notes. By displaying romantic characteristics in musical composition, cello sonata also shows the face of a 'conventional romanticist'.